

2022년 제2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포럼

노인인권과 정신정서적 건강

9월 6-7일, 대한민국 서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AGAC)는 제2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노인인권과 정신정서적 건강을 주제로 개최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있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웰빙의 상태”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노인을 포함해 누구라도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신체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와 마찬가지로 긴급하게 치료되어야 한다.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있어 정신건강은 신체건강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노인의 정신정서적 건강 문제들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노인 네 명 중 적어도 한 명은 우울증, 불안,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을 겪는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가진 노인의 수는 2030년까지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WHO, 2017). 또한 85세 이상의 노인들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 그러나 노인의 정신정서적 문제들은 나이들의 정상적인 부분, 상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여겨지거나, 허약, 치매의 조짐으로 오해받는다. 노인은 정서적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여 치료를 잘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 결과 “치료 공백(treatment gap)”이 발생하기도 한다. 노인의 정신정서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낮거나 무시되는 만큼 노인의 정신질환은 결과적으로 자살, 고독사와 같은 다른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그에 따른 봉쇄 조치 등은 노인의 외로움을 증가시켰으며 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상황에서 노인의 정신정서적 건강과 웰빙은 건강, 배움, 생산성, 사회적 포용을 위해 우선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아셈 회원국 정부들은 노인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AGAC는 본 포럼을 노인의 정신정

서적 건강에 관해 환기하고, 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국제기구, 정부 인사, 학자,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논의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본 포럼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 유럽 노인의 정신정서적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코로나19 팬데믹의 맥락에서 다룬다. 둘째, 정신건강의 위기 대응과 관련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조치 및 각국 정부와 국제 시민단체가 이행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한다. 셋째,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 외로움 등의 예방에 있어 세계적인 협력 증진 및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추가적 노력에 관해 토의한다.

세션 별 토론 주제

본 포럼은 WHO 특별 세션 등 네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WHO 특별 세션에서는 WHO가 2021년 출간한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이라는 제목의 애드보커시 브리프(Advocacy Brief)의 내용과 관련 사안이 논의된다. ‘시민사회 토크 콘서트’ 세션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갖는다. 이 세션에서는 국제 NGO의 활동가 및 실무자들이 그들의 활동에서 얻은 경험과 배움을 공유하여 성공적인 모델케이스를 제도화하고 이를 광범위한 정책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각 세션은 좌장에 의해 진행되며 4-5명의 발표자(각 15-20분)로 구성된다. 발표 이후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진다. 세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세션 1 노인의 정신정서적 건강: 현황 및 대응
세션 2 시민사회 토크 콘서트: 권리에 기반한 커뮤니티 빌딩의 사례 공유 및 탐색
세션 3 고독에 대한 정부의 대응
WHO 특별 세션: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

세션 1: 노인의 정신정서적 건강 - 현황 및 대응

세션 1에서는 노인의 정신정서적 건강 분야 전문가 및 학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우울증, 고독사, 자살 등 여러 관련 이슈를 다룬다. 활동 중단과 칩거,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 노년의 남성, 여성과 관련된 정신건강 위기의 여러 경고 조짐이 있지만 이러한 조짐들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65세 이상의 다수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만성 질환이 치료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 그 결과, 정신질환은 발견되지 못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세션 1에서는 정신정서적 건강 문제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까지 취해진 다양한 대응 조치에 대해 논의한다. 발표자로 인도 콜카타 소재 아폴로 종합병원의 노인정신의학과 전문의 디반잔 바너지 박사(Dr. Debanjan Banerjee), 한국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하정화 교수, 체코 올로모우츠에 소재한 팔라츠키 대학교(Palacký University Olomouc) 체육문화학부의 이선우 박사가 참여한다. 세션의 진행은 한국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김기연 교수가 맡는다.

세션 2: 시민사회 토크 콘서트 - 권리에 기반한 커뮤니티 빌딩의 사례 공유 및 탐색

시민사회 토크 콘서트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나누는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학자나 정부인사가 참여하는 다른 세션과의 차별성을 두어 풀뿌리 수준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그룹의 활동가 및 실무자들을 초대한다. 금년 시민사회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권리에 기반한 커뮤니티 빌딩의 사례 공유 및 탐색’이다.

커뮤니티 기반의 지원 및 서비스는 그 형태가 다양하다. 즉, 노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그들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별화된 건강 및 지원 서비스에서부터 가족, 친구, 커뮤니티와 사회적인 연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까지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 정부, 가족, 커뮤니티, 시민사회는 노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자의 수단으로 여러 수준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시민사회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현재까지 여러 장기 돌봄 서비스가 국가적 수준에서 시행되었지만, 이러한 서비스에 노인이 접근하는 데에

는 아직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더욱이 건강한 노인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요구는 신체적 필요 때문만이 아니라 심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아셈 회원국들은 인권적 관점에서 새롭고 대안적인 커뮤니티 빌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 포럼에서는 특히 아셈 회원국 NGO들이 각기 다른 물질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하고 시행한 인권 기반 커뮤니티 빌딩의 사례 및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모범 사례의 제도화와 광범위한 정책 영역에의 적용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상기 시민사회 토크 콘서트 발표자들은 아셈 회원국의 커뮤니티 빌딩 사례 및 프로젝트에 관여해 온 NGO 활동가들이다. 에이지 플랫폼 유럽(Age Platform Europe)의 일레니아 게노(Ms. Ilenia Gheno)와 퀘라움(Queraum)의 수잔 도브너(Ms. Susanne Dobner)는 지역사회 노인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결성해 서로를 지원하는 ‘꿈의 이웃(Dreamlike Neighbourhood)’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베트남 헬프에이지(HelpAge International Vietnam)의 추비엣 응아 수석매니저(Ms. Chu Viet Nga)는 ‘세대 간 자조 클럽(Intergenerational Self-Help Club, ISHC)’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헬프에이지(HelpAge Korea)의 조현세 회장은 한국에서 시행된 다양한 커뮤니티 빌딩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태국 탐마삿 대학교 나타팻 사로볼 교수(Prof. Nattapat Sarobol)와 태국 부엥이토 지자체의 티티난 낙푸 의사(Ms. Thintinan Nakphu)는 ‘강한 프로그램 - 포괄적 노인 돌봄을 위한 협력적 도시공동체 모델(Strong Program - A Collaborative Municipal-Community Model for Comprehensive Elderly Care)’에 관해 논의한다. 일본 노제자카 글로칼(Nogezaka Glocal)의 토모요 스즈키(Ms. Tomoyo Suzuki)는 태국의 파트너들과 연대하여 ‘강한 프로그램(Strong Program)’에 참여하였는데 일본에서 시행된 유사 프로그램에 관해 소개한다. 또한 일본에 본부를 둔 그룬트비사(Grundtvig, Inc.)의 CEO 켄스케 스가와라(Mr. Kensuke Sugawara)는 ‘하나의 대가족으로서의 주거단지(Housing Complex as One Big Family)’ 프로젝트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 프로젝트는 ‘2020 아시아 건강 및 장수 혁신상(2020 Asian Health and Longevity Innovation Award)’ 받았다. 세션 2의

진행은 한국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의 박영란 교수가 맡는다.

세션 3: 고독에 대한 정부 대응

외로움(loneliness)은 노인들에게 절박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은 일부 나라에서는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17년 말, 영국 정부의 ‘조 콕스 외로움 위원회(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는 영국의 만연한 외로움에 대한 1년간의 조사를 보고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약 9백만 명의 영국인이 외로움을 겪는데, 이는 전체 인구 중 14퍼센트에 해당한다.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 집단의 경우 이러한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18년 역사상 처음으로 외로움 문제를 담당할 장관을 임명하고, “외로움 전략(Loneliness Strategy)”을 발표했다(HM Government UK, 2018). 일본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악화된 외로움과 고립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처음으로 고독부 장관을 임명했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정부는 외로움을 국가 정책 과제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세션 3에서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국가의 정책적 과제로 채택한 국가 중 영국, 일본, 독일, 한국 정부 인사가 참여한다. 영국 디지털,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부의 엠마 바로우 정책고문(Ms. Emma Barlow), 일본의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조치를 담당하는 마사노부 오구라(Mr. Masanobu Ogura) 장관,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마티아스 폰 슈바넨플뤼겔 총국장(Dr. Matthias von Schwanenflügel), 한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의 이유리 사무관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발표자들은 외로움에 대응하는 정부 기관을 설립한 이유 및 시사점(영국과 일본의 경우), 해당국에서 봉착한 어려움, 지금까지 시행하였고 향후 채택할 조치 및 정책 등을 논의한다. 세션 3의 진행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 연구위원인 남궁은하 박사가 담당한다.

세계보건기구(WHO) 특별세션: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

WHO는 2021년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Among Older People)”이라는 제목의 애드보커시 브리프 (Advocacy Brief)를 발간했다. 이 브리프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에 대한 보건 정책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러한 문제들이 세계적으로 심각해진 사실을 강조한다. 상기 브리프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을 겪는 노인의 규모 및 영향과 해를 요약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제안한다. 또한 이 브리프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세계적 연대에 기반한 전략을 제시한다.

WHO 특별세션의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상기 WHO 브리프의 주저자인 크리스토퍼 믹튼 박사(Dr. Christopher Mikton)가 해당 브리프의 주요 결과와 의의를 발표한다. 그리고 네 명의 토론자가 관련 이슈를 논의한다. ‘외로움 함께 끝내기(Ending Loneliness Together, ELT)’와 ‘외로움과 연결에 관한 국제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on Loneliness and Connection, GILC)’의 창설 멤버인 미셸 림 박사(Dr. Michelle Lim), “유럽 노인의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보고서의 주저자인 유럽 사회복지정책 연구센터의 에스터 졸료미 연구원(Ms. Eszter Zólyomi)과 베로니카 산두 연구원(Ms. Veronica Sandu),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최은수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상기 WHO 애드보커시 브리프와 관련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한국에서의 경험과 연구 결과도 공유할 것이다. WHO 특별세션의 좌장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센터장인 장은하 박사가 맡는다.

일정

구분	Day 1 9.6(화)	Day 2 9.7(수)
오전	<p>등록 (09:30-10:00)</p> <p>개회사 지은희 원장(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p> <p>축사 김상희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두환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Maria Castillo Fernandez대사(주한 EU대표부)</p> <p>기조연설 Diego De Leo 명예교수 (그리피스 대) 류인균 교수 (이화여대) (11:00-11:30)</p>	
점심	<p>오찬 (11:30-13:00)</p>	<p>등록 (12:00-13:00)</p>
오후	<p>세션 1 (13:00-15:30) 노인 정신정서적 건강: 현황과 대응 좌장: 김기연(중앙대) 발표자: Debanjan Banerjee (아폴로 병원, 콜카타) Kohei Suzuki(레이던 대) 하정화(서울대) Sunwoo Lee(팔라츠키 대)</p>	<p>세션 3 (13:00-15:30) 고독에 대한 정부 대응 좌장: 남궁은하(보사연) 발표자: Erma Barlow (영국 미디어디지털문화스포츠부) Masanobu Ogura(일본 내각부) Matthias von Schwanenflugel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이유리(한국 보건복지부)</p>
	<p>휴식 (15:30-16:00)</p>	<p>휴식 (15:30-16:00)</p>
	<p>세션 2 시민사회 토크콘서트 (16:00-18:30) 인권 중심 커뮤니티 빌딩 모범사례 공유 및 정책화 방안 좌장: 박영란(강남대) 발표자: 조현세(한국헬프에이지) Ilenia Gheno(Age Platform 유럽) Sussane Dobner(Age Platform 유럽) Chu Viet Nga(헬프에이지 베트남) Nattapat Sarobol(탐마삿 대) Thitinan Nakphu(부엡이토 지자체) Tomoyo Suzuki(노제자카 글로벌) Kensuke Sugawara(그룬트빅)</p>	<p>WHO 특별세션 (16:00-18:00)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 좌장: 장은하(여성정책연구원) 발표자: Christopher Mikton(WHO) Michelle H. Lim(GILC/스윈번대) Eszter Zolyomi(유럽사회복지정책연구원) Verica Sandu(유럽사회복지정책연구원) 최은수(고려대)</p>
		<p>폐회사 이혜경 이사장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이사장) (18:00-18:30)</p>